

경인일보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019면 문화

경기관광공사 '파주 DMZ 투어' 운영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6일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 놀아보자 in 파주 DMZ 투어' 상품을 운영한다.

이번 투어상품은 왕복 투어버스, 전문 가이드, 임진각 평화누리 자유관람 및 캠프 그리브스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군번줄 체험,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즐기는 피크닉 등을 포함했다.

투어버스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호선 합정역에서 매주 주말 오전 10시에 출발하며 버스 한대당 40명 한정으로 이용 가능하다. 상품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1만원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투어버스 이용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인통제구역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와 도라산 평화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현장에서 남북 화해무드를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경인일보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020면 사람들

경기관광공사-KT&G 상상univ 워크숍

경기관광공사와 KT&G 상상univ는 지난 9일과 10일 캠프 그리브스에서 한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ASA-K)의 DMZ 평화정거장 아티스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ASA-K 소속 대학생 6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행사기간 동안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에 머물면서 아티스트 워크숍을 비롯해 주말 거리예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티스트 워크숍은 작가와 참가자가 함께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처음 캠프 그리브스에서 DMZ 평화정거장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됐다. 올해는 작가 '카나'와 대학생들이 '터치 오브 피스(TOUCH OF PEACE)'를 주제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를 나비로 채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